

[TV]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TV schedules for KBS1, KBS2, MBC, and KBC/SBS. Columns include channel, program name, time, and episode number.

EBS TV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episode details.

EBS Plus 1 and EBS Plus 2 schedule table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episode details.

“마술로 세계 빈민들에게 희망 전해요”

MBC 'W', 30일 '국경 없는 마술사' 소개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할머니의 채소 장사를 도우며 아홉 식구와 방 한 칸에서 사는 12살 소년 윌리엄 줌바. 4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마저 집을 나갔다. 이처럼 고단하게 살아가는 줌바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준 단체는 바로 '국경 없는 마술사'다. MBC TV 국제 시사 프로그램 'W'는 30일 밤 10시 50분 마술 공연을 통해 빈민촌에 희망을 주는 이 단체의 활동을 살펴본다. 국경 없는 마술사는 1991년 마술사 부부 톰 베르너와 야네트 프레데릭스가 설립했으며 코스타리카와 마케도니아의 수용소에서 싸움을 틔웠다. 엘살바도르에서는 5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마술캠프도 열고 있다.

이 단체를 통해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다. 줌바도 마술캠프에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12명의 어린이가 엘살바도르 곳곳을 누비며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다.



줌바는 캠프를 마친 뒤 화산 폭발로 폐허가 된 마을을 찾아 주민 앞에서 마술을 선보였다. 또 이날 방송에서 주빈의 힘으로 100%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뤄낸 덴마크 삼소 섬의 이야기를 전한다. /연습뉴스

KBC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창조도시의 조건' 방영

KBC광주방송은 신년 보도특집으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비전과 과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창조도시의 조건'을 오는 31일 밤 11시 5분 방영한다. 31일 방영될 '창조도시의 조건'(연출 김영락 기자)은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자산에도 불구하고 변방의 도시에 머물러 온 광주 문화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등을 담고 있다. 또 광주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그에 따른 타지역 창조계층들의 시각들을 그대로 전달해 광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제작진은 세계적 창조도시로 알려진 일본 요코하마에 대한 현지 취재를 통해 과거 100년 동안 요코하마가 추진해 온 도시가꾸기 사업과 부의 창조과

Section for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5th West District Mayor Cup Go Tournament)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the competition.

Section fo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telling for today)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Large section for language learning with four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1230>', '오하오우 니혼고 <1230>', '니하오 쫑구워 <307>', and '한자 이야기 <947>'. Each column contains text and exercises in English, Korean, and Japanese/Chinese.